

종이 울리면 웃음꽃이
피어난다

‘함초롬히 핸드벨팀’

고양시 덕양구에 자리한 원당도시재생배다리행복나눔터. 2층 교육장 문 밖으로 맑고 영롱한 핸드벨 소리가 새어 나온다. 작은 창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함초롬히 핸드벨팀의 공연 연습이 한창이다. 마스크를 쓰고 서로 멀찍이 떨어져 앉아 있지만, 눈을 보면 알 수 있다. 연습을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밝게 웃고 있는지.

글 편집부 / 사진 조병우



가지런히 고운 소리, 함초롬히

함초롬히 핸드벨팀은 희망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고양실버인력뱅크 핸드벨 수업을 듣고, 자연스럽게 공연팀까지 결성한 팀이다. 10년 넘게 고양시에서 멋진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고양어린이박물관에서 정기적으로 선보이며 고양국제꽃박람회, 나눔장터 등에서도 공연을 이어간다. 코로나19로 현재는 연습을 통해 실력을 다지며 다시금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

고생은 잠깐, 행복은 평생

기억에 남는 공연을 묻자 저마다 표정이 밝아진다. “요양 병원에 가면 어르신들이 연주에 맞춰 노래를 따라 부르고 춤도 추세요. 그 모습을 보면 참 뿌듯해요. 계명을 외우느라 머리에 쥐가 나던 것도 잊을 만큼 즐거워져요.” “공연이 끝나면 아이들이 ‘앙코르!’하고 외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60~70대의 나이에 계명을 외우기는 분명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성취감과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물한다는 기쁨은 그러한 고생을 잊기에 충분하다. 핸드벨팀 반장 이부자 씨도 “고생은 잠깐이지만, 행복은 평생 간다.”라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하자고 권하고 싶다.”며 밝게 웃었다.

핸드벨 소리처럼 맑고 고운 노후

맑고 고운 핸드벨 소리를 매일 들어서인지, 연주하는 이들도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듯하다. 핸드벨팀에서 가장 신입이라는 김옥란 씨는 “무언가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천천히 해내고 있는 저를 보면 얼마나 대견하고 뿌듯한지 몰라요. 함께 할수록 젊어지는 기분이예요.”라고 말한다.

남을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결국 그 끝에서는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됐다는 그들. ‘함초롬히’라는 이름처럼 점점 더 고운 팀이 되어가는 함초롬히 핸드벨팀의 고운 하모니를 하루빨리 직접 들어볼 수 있길 바란다.



무언가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천천히 해내고 있는
저를 보면 얼마나 대견하고
뿌듯한지 몰라요.

